

# 제8회 가천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발표

유·초·중·고교 각 부문별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 등 총 517명 선정

군산시는 29일 가천문화재단(설립자 이길여·이사장 윤성태)이 제8회 가천그림그리기 대회 온라인 공모전 수상자 517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등부 대상 손재원(군산중앙여고2-9) 작품

중앙여고2) △중등부-한시유(군산동산중2), 조유리(전주예술중2) △초등부-이설(군산금빛초1), 이도운(군산용문초2), 박소운(인천연송초3), 최예나(군산월명초4), 최별(군산선유도초5), 김서영(전주서일초6) △유치부-이서이(인천용화초 병설유치원), 박보미(군산예림미술교

습소) 등을 선정했다.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부상, 그리고 수상작들을 엮은 작품집을 함께 증정할 예정이며, 작품을 제출한 모든 학생에게 참가기념품을 제공한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전북지역 일대와 수도권에서 특별전시회를 열 예정이며, 시와 교류하는 해외도시에서도 순회 전시를 진행한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고석인 군산대학교수는 "한국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기고 있는 지금, 아이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되새겨보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된 것 같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곡선미(美)를 잘 살려낸 작품들은 수준 높은 그림 실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군산=김관곤 기자

#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 서예 실력 발휘

전국벽골미술대전 서예부문 장려상 수상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이 (사)한국미술협회 김제지부에서 주최하고 벽골미술대전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벽골미술대전 서예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하는 전국벽골미술대전은 호남 지역은 물론 영남,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총 6개 분야, 300여건의 작품이 출품되어 명실상부한 전국대회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번 공모전은 국내에서 공부중인 외국 유학생들도 일부 참여하여 국제대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주택 의원은 이번 미술대전에 세종29년 약관 24세의 나이로 친서문과에 장원한 강희맹선생의 시문을 서예작품으로 선보여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장려상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주택 의원은 "서화의 본고장인 김제에서 자부심과 전통을 살려 매년 개최되고 있는 벽골미술대전에서 일련한 솜씨에도 입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이리



한 문화행사가 활발히 개최되어 지역 미술 저변이 넓어지고 시민들의 미술 관람기회가 확대되어 문화예술 진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재 기자

# 메타버스 시대 향한 '첫 걸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플랫폼 개발 협약

학교법인 우석학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손잡고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서현석 대표와 이용재 사무처장,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영로 원장과 김형석 콘텐츠사업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한 첫 발을 내딛었다.

29일 전당에 따르면 이날 연회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현석 대표와 이용재 사무처장,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영로 원장과 김형석 콘텐츠사업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해 기관 간 공공사업 연계 및 홍보마케팅 관련 정보 제공과 물적 교류 및 협력 등을 약속했다.

세부적인 협약 내용은 △양 기관 사업 연계 시너지 효과를 위한 공동 노력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교류 △양 기관 운영 관련 상호 자문 및 협업 지원 △양 기관 운영방식과 사업에 대해 상호 필요한 벤치마킹 협조 △기타 상호 우호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협력 등이다.

한편 전당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메타버스 시대를 향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서현석 대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업 협약으로 전당 전용 온라인공연장 개설이 꿈이 아닌 현실로 가능해졌다"며 "전당이 지역문화회관들의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해 전북도민들이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문화예술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0-800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새단장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어린이박물관을 새 단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에게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친숙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영상놀이터'에서는 대형 LED 미디어월(가로 11m, 세로 3m)에서 전주의 역사와 문화, 주요 문화재에 관한 영상을 상영한다.

'한백당과 지내이야기'는 전주의 전통설화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전주의 모습과 선비 생활을 동화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다. 주인공 두리 도령과 괴물 지내의 싸움, 배경이 되는 전주의 주요 유적지들을 보여 어린이들의 흥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마을 보물찾기'는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실의 대표 유물을 어린이의 시선에 맞춰 소개해 어린이들이 상설전시실로 자연스럽

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상을 감상한 뒤에는 전시실 내부의 '국립전주박물관의 보물들을 알아보는 퍼즐놀이', '전주의 명소를 찾아가는 미로찾기' 등을 통해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유아들(만6세 이하)이 안전하게 놀면서 신체 및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는 '쌓고 노는 문화재놀이터'도 마련했다.

다음으로 '선비의 삶이살'은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고,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했다. '과거 보러 가는 길'은 옛 선비들의 과거를 보기 위한 여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무과시험장'에서는 모형 말을 타고 친구들과 함께 무과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박물관 관람 및 체험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군산시립교향악단, 이명근 상임지휘자 취임 연주회 개최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하는 이명근 상임지휘자 취임 연주회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제11대 상임지휘자로 취임하는 이명근의 지휘 아래 '소프라노(홍주영)', '메조소프라노(최수현)', '테너(황병남)', '바리톤(정승기)'과 군산시립합창단이 함께 협연한다.

이 지휘자는 지휘계의 대부 Gustav Meier로부터 "아주 재능 있는 젊은 지휘자"라는 찬사를 받고 독일, 미국 클래식의 흐름까지 섭렵하며, 미국 피바디 음대 졸업 후 국내, 외에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발전시켰다. 뿐만 아니라 제주시향, 수원시향, 부천시향을 객원 지휘하며,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지휘자로 부각된 지휘자다.

/군산=김관곤 기자

# 전주대 박물관, '한복 입고 박물관 나들이'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김진우)은 특별전과 연계, 12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한복 입고 박물관 나들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한복 입기 좋은 날'을 활용해 한복의 문화와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관람객들이 전시 관람 후 한복을 입고

전시실, 교재를 투어하며 찍은 사진을 SNS에 인증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한복 입기 이벤트뿐만 아니라 한복 장신구인 향낭 키링 만들기 프로그램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